

신구대학식물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경식(신구대학)

들어가며

2003년 5월에 개원한 신구대학식물원은 현재 산림청 학교수목원으로 등록되어 학생들에게는 실습교육의 장으로 성남시, 수도권의 일반시민과 청소년들에게는 체험환경교육의 장으로, 전문가들에게는 식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조성단계에서부터 어린이를 위한 식물원을 지향하여 교육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대학식물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녹색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구대학식물원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특성은 첫째, 지리적으로 도시권에 인접한 식물원으로, 도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인 교육 대상과 교육을 담당하는 활동가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전시되어 있는 시설과 식물이 우리나라의 자생식물과 자원식물로 특화되어 있고 곤충과 수서 무척추 동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생태계 내의 관계성에 중심을 두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활동가 양성과 자율적인 활동가 조직 운영으로 식물원이라는 장소성과 시간성을 교육내용에 적극 반영하는 유연성이 있고 대학의 각 분야 전문 인력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과 역량강화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신구대학식물원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한 축인 환경해설가 양성과 활동가 조직의 구성, 프로그램기획과 진행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모색을 하고자 한다.

펼치며

신구대학식물원에서의 환경교육 사례는 식물원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 볼 수 있다. 체험환경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들에 대하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여건 중,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연 및 시설환경여건과, 교육을 진행하는 주체인 해설가 및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수적이었다.

1. 자연 및 시설여건

신구대학식물원은 건축물로는 에코센터, 곤충생태관, 안내센터가 조성되었고, 서양정원, 계절초화원, 철쭉원, 어린이정원, 허브원과 미로원, 습지생태원, 연꽃원 등과 나무놀이터, 햇님·달님·별님 쉼터, 체험학습실 등의 놀이와 휴게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현재 에코센터 지하에 땅속 체험동굴과 식물원 중심부에 주제정원이 조성 중에 있고 활동가들의 손에 의해 잡초원(?)이 조성되었다. 식물원내 요소는 체험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 시기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의 원천이 되고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 환경해설가 양성

환경해설가 양성을 위해 환경해설가의 직무에 대한 분석을 2003년 10월 19일에 DACUM기법으로 실시하여 이로부터 도출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환경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은 1기, 2004년 9월 8일~11월 24일, 2기 2005년 3월 16일~5월 30일에 걸쳐 각각 3시간씩 22회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을 수료한 해설가로 신구대학식물원 체험교육활동가 모임인 “느티길동무”를 결성하게 되었다.

느티길동무는 현재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11명의 해설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성남(분당)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과 밀접한 특성이 있다. 느티길동무의 운영조직은 프로그램 개발팀, 프로그램 운영팀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 필요한 교재, 교구개발을 구성원 간의 협의로 진행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

3. 프로그램 운영

신구대학식물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물원 체험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취학이전의 어린이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아대상 프로그램

유아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단체 방문(1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 예약(예약금 입금)이 필요하고, 주 4일(화-금) 오전 10시 30분~12시(1시간 30분)의 시간에 운영한다. 다만, 환경해설가 1인당 15~20인 이상의 어린이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은 어렵기 때문에 1일 예약인원은 1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진행과 구성은 해설가 인솔 형으로 시기에 따라 5-6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식물원에 살고 있는 식물, 곤충 등을 오감으로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

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운영되는데, 체험프로그램은 관찰 활동(식물관찰, 곤충관찰 등), 오감체험 활동, 만들기 활동을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하고 팀 간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 코스 구성을 당일 교육 팀 수에 따라 결정한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야생화심기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심은 야생화 화분은 가져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를 위한 식물원 체험프로그램은 3,000원/1인의 교육활동비를 받으며, 교육활동비의 50%를 자원 활동가의 지원비로 지급하고 있다.

초등학생대상 프로그램- 교과서 밖으로 떠나는 녹색체험교실

식물원에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다 공익성이 높고 교육여건이 좋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녹색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 밖으로 떠나는 녹색체험교실” 프로그램을 느티길동무와 함께 기획 운영하게 되었다.

선택과 집중, 교육과정과의 연계라는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신구대학식물원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녹색 교육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주로 성남 소재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춘 주제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녹색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느티길동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초등학교 3~4학년의 눈높이에 맞게 녹색체험교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적용 후 평가를 통하여 향후 녹색체험교실 프로그램이 제2의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개체(object) 중심에서 관계(relative)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 운영의 의의는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 유아 체험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전이하는 발전단계로 구상된 프로그램이라는 점 이기에 향후 더 다양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으로 이는 곧 자원활동가, 느티길동무의 교육 역량이 높아져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구성,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생각하며

신구대학식물원에서의 교육활동은 설립목적 상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이며 자라나는 학생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은 식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행태를 육성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신구대학식물원은 성남시민들 뿐만 아니라 성남시 주변 수도권 일반시민과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 친화적 행태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표 1).

이에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와 과제를 내어본다.

첫째, 교육활동장소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활동이 거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성 상 계절을 포함하는 시기적 변화와 공간의 구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생태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내실 있는 체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해설가 양성으로 식물원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해설가 양성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수적인데, DACUM분석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개발과 운영, 평가와 같은 교육능력 향상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졌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 교육과정은 해설가 인증제와 연계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지속적인 심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해설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설가의 교육미션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식물원의 미션과의 공유와 함께 각 구성원의 성취감과 만족도와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람, 즐거움과 같은 자아실현과 경제성, 지속적인 자기개발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열린 논의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다양화라는 상반될 수도 있는 과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운영에서의 창의성과 통합적인 안목이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심화교육과 분야별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의 운영과 프로그램 요소들을 DB화하면서 새로 발굴하여 모듈화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환경단체는 환경해설에 대한 다양한 실전 경험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환경단체와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해설가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자연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대상 단체인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모임등과 지속적인 관계설정과 교육 목표, 내용에 대한 협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상호 피드백을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은 환경문화의 발전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신구대학식물원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안

구분		도입 단계	안정화 단계	발전 단계
운영시기		2003.5~2004.12	2005~2007	2008년 이후
특성		소극적 운영	점증적 운영	적극적 운영
운영목표		식물원 기반시설과 운영체계의 준비기간	적극적인 식물원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수목원 인가준비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포괄하는 학교수목원구축
교육 대상	중점교육 대상	성남시, 서울시 일부 유치원생을 대상	성남시, 서울시 유치원생, 초등학생	수도권 유치원생, 초등학생
	일반교육 대상	인터넷, 전화예약을 한 일반이용자(인원제한)	인터넷, 전화예약을 한 회원 및 일반이용자 (인원제한)	
운영 특성	요금징수 방법	프로그램 참가비 기념품 판매로 대체	입장료 징수 프로그램 참가비 별도	
교육 방법	스스로 관찰형	해설관 개발(50%) 리플렛 개발(1회/년)	해설관 개발(100%) 리플렛 개발(2회/년)	해설관 보수(100%) 리플렛 개발(4회/년)
	해설자 주도형	정규 프로그램 5종 운영 식물교실, 곤충교실 생명과학교실 도자공예교실 원예교실(성인)	정규 프로그램 7종 운영 식물교실, 곤충교실 생명과학교실 도자공예교실 애원동물교실 습지생태교실 원예교실(성인)	비정규프로그램(캠프활동) 여름, 겨울방학 프로그램 개발
행사 및 event		2회 개최/년	4회 개최/년(분기별 1회)	5회 이상 개최/년 (월별행사준비)
도입요구 시설		도자공예교실 조성 방문객을 위한 기반시설 보완 및 확충	비지터 센터 확충 교육시설(시청각실) 보완 장애자 시설 보완	
홍보방안		홈페이지 개발 리플렛, 기념품 2종 개발 지역중심 홍보(성남) 학교신문, 지역신문활용	소식지(뉴스레터)발간 수도권 중심 홍보	연구결과 책자발간 현황소개 책자발간
환경해설가 육성 방안		1회/년(3개월 코스개발) 20명 교육	2회/년(3개월 코스개발) 40명 교육	
학교교육 연계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교육과정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교사모임 조직 초등학교 고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프로그램 개발	
Homepage 운영		콘텐츠개발 및 구축	어린이대상 콘텐츠 개발 및 구축(어린이식물교실, 곤충교실 등)	사이버 환경교육 실시